

제 3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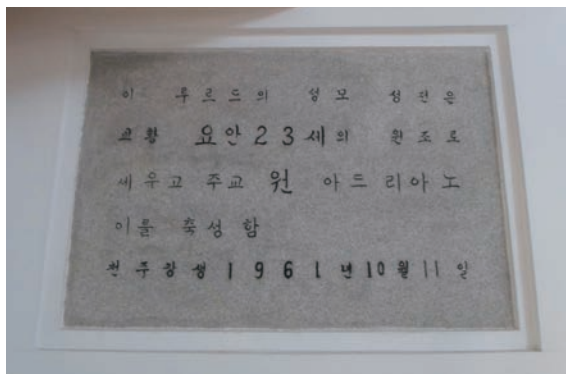
변화와 쇄신 운동의 전개

I. 성당, 공소, 학교의 확장

1. 새 성전 건립

6·25전쟁 이전부터 있던 본당 사제관은 전쟁 중 터키 군인들의 실화로 불타버려 전쟁 후 신부가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생제 신부는 UN군의 보상을 받아 새 사제관을 지으려 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¹⁷¹ 결국 생제 신부는 보상과 상관없이 사제관을 짓기로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건축업자와의 관계 안에서 쉽지

—
새 성전
머릿돌과
성전 봉헌
기념 석판



않았다. 본래 1955년 부활 주간에 입주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건축업자는 9월로 한 차례 완공을 미뤘고, 결국 1956년에 가서야 입주할 수 있었다.

신자 수의 증가는 본당과 공소 모두 이뤄졌다. 따라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했다. 대표적으로 1957년 갈매울공소는 강당을 신축하였다.¹⁷² 하지만 공소 강당과 달리 성당 신축은 막대한 재정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에 생제 신부는 5개년 계획을 세운 후 1958년부터 성전 신축에 돌입하였다.¹⁷³

당시 사목활동과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생제 신부는 빠듯하게 보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생제 신부는 성당건립을 위해 교황청에 원조금을 청하였다. 1959년에 땅을 고르는 기초공사가 진행되었고, 1960년 2월 16일에는 라리보 주교가 방문하여 새 성전의 초석을 축성, 성전 건립의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다.¹⁷⁴ 본당 교우들의 열성적 참여와 함께 교황청과 해외에서 오는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 새 성전 공사는 1961년 10월 11일 준공하여, 봉헌식을 가지게 되었다.¹⁷⁵

“신축된 논산본당 축성식 거행. 그간 신축공사 중이던 논산본당이 준공을 보게 되어, 지난 10월 11일 상오 9시 30분 대전교구장 원 주교의 집전으로 강복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한다.”¹⁷⁶

봉헌식에는 라리보 주교와 한공렬 주교, 45명의 사제, 1천여 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였다. 축성 후 장엄미사가 있었는데, 당시 보좌신부였던 로페페 신부의 지도 아래 한 달간 연습한 성가대의 성가와 로페페 신부의 섬세한 그레고리안 미사곡으로 미사는 한결 더 성과를 거두었다. 미사 후에는 공식적인 축하연을 가졌다.¹⁷⁷

현재 본당 사무실에는 「논산성당 주임신부에게 주는 강복장(성무집행권한수여증서)」, 그리고 「논산 루르드의 성모성당 십자가의 길 건립에 관한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 이 두 문서는 대전교구 안에서 허가장과 인가장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논산성당 주임신부에게 주는 강복장(성무집행권한수여증서)(1961년 6월 11일)

논산성당의 주임신부에게 성무를 집행할 항구적인 권한을 다음과 같이 수여합니다.



1. 모든 주일과 4대 축일
2. 모든 축일(대축일과 축일)
3. 모든 기념일
4. 3일과 9일간의 피정과 성지순례시
5. 주임신부의 지향에 따라 한 주간에 2번
미사봉헌

1961년 10월 11일

천주교 대전교구장 원 안드리아노 주교

논산 루르드의 성모성당 십자가의 길 건립에 관한 증명서



본인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교황청 내사원
규정에 따라(1742년 5월 10일)

본인은 논산본당에 전대사와 함께 십자가
길(14처 성화)을 설치하고

이들의 믿음으로 1961년 10월 8일 친필
서명하여 증명하노라.

본당신부 생제(성제덕) 회장 김마지아 서명

2. 공소들의 증설

1962년 한국 교회는 교계제도가 설정되어 독립적인 교계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대목구(代牧區), 즉 교황대리감목구가 아닌 별도의 주교좌를 갖는 교구(敎區)의 체제를 갖게 되었다. 이는 1950년 성년(聖年)을 맞아 로마를 방문한 한국 주교단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¹⁷⁸

하지만 한국 교회가 비록 독립적 교계제도를 갖추었어도 경제적 자립의 길이 요원해 보이던 때였다. 논산본당의 새 성전 건립에서 보듯이 한국 교회는 여전히 해외 원조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본당뿐만 아니라 공소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1967년 대전교구에서는 본당별로 강당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한 공소들에 대해 원조요청서를 받은 바 있다. 그때 논산에서는 연산과 양촌공소가 원조를 요청하였고, 백석공소는 요청은 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원조를 받아 강당을 건립하였다.

1) 연산공소 원조 요청

〈원문〉

	Fr. J. Son Catholique Mission Non San Eup Chung Nam KOREA
† 주의 평화	
공경하옵 두 신부님! 성무에 얼마나 고됐으십니까?	
드릴말씀 다름 아니라	
폐본당 연산공소가 진작부터 강당이 있어야 할	
조건으로 사료되는 바. 우금까지. 그렇치를 못하여 여간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철도변(연산역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는	

연산은 소재지 인구 2,000여명정도에 10%로 남짓한 200명 이상의 교세를 보이며 인근 교우들도 강당만 있으면 이로 주일을 보러오게 되는바, 그렇지 못하여 심히 답답함을 금할길 없어 간청하옵니다. 부면장을 공소회장으로 모시고, 연산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주일에 두차례씩 예비자 교리를 하며 오래전부터 레지오까지 조직되어, 전교에 활발한 기세가 풍자합니다

현재도 오래전부터 공소회장님 댁에서, 마루에 제대를 꾸미고 방한칸 이용하면서 공소를 봐오고 교리를 했던것입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심히 안타까워, 말씀드리오니 주교님과 협의하여 강당이 이루어 지도록 간곡한 협력을 제삼 부탁드립니다. 두차례나 무리한 부탁이나 이루어 질것을 믿읍니다

주성모님의 가호속에 믿고 내々 평안하옵기 바랍니다.

〈번역〉

† 주의 평화

공경하올 두 신부님! 성무에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드릴 말씀은 다름 아니라 폐 본당 연산공소가 진작부터 강당이 있어야 할 조건으로 사료되는바, 지금까지^{ㅈㅅ} 그렇지를 못하여 여간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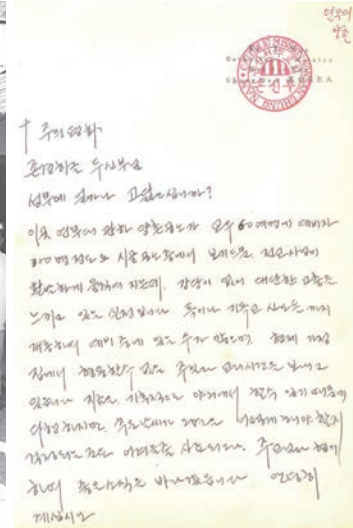
철도변(연산역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연산은 소재지 인구 2,000여 명 정도에 10% 남짓한 200명 이상의 교세를 보이며 인근 교우들도 강당만 있으면 이로 주일을 보러오게 되는바, 그렇지 못하여 심히 답답함을 금할 길 없어 간청하옵니다.

부면장을 공소회장으로 모시고, 연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주일에 두 차례씩 예비자 교리를 하며 오래전부터 레지오까지 조직되어, 전교에 활발한 기세가 풍자합니다.

현재도 오래전부터 공소회장님 댁에서, 마루에 제대를 꾸미고 방 한 칸 이용하면서 공소를 봐 오고 교리를 했던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심히 안타까워, 말씀드리오니 주교님과 협의하여 강당이 이루어지도록 간곡한 협력을 제삼 부탁드립니다. 두 차례나 무리한 부탁이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 성모님의 가호 속에 내내 평안하옵기 바랍니다.

연산공소
교우들과
원조요청서
(1967)



2) 양촌공소 원조 요청

〈원문〉

† 주의 평화
존경하옵 두신부님
성무에 얼마나 고맙으십니까?

Fr. J. Son
Catholique Mission
Non San Eup
Chung Nam KOREA

이곳 연무대 관하 양촌공소가 교우 60여명에 예비자 300명 정도로 시골공소중에서 보기드문 전교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여 지는데, 강당이 없어 대단한 고충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이나 기독교 신도들까지 개종하여 예비중에 있는 수가 많으며, 현재 가정집에서 형용할수없는 주일과 교리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적으로 야외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다행하지만 추운날씨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는군요 어려울줄 사료되오나, 주교님과 협의하여 좋은 소식을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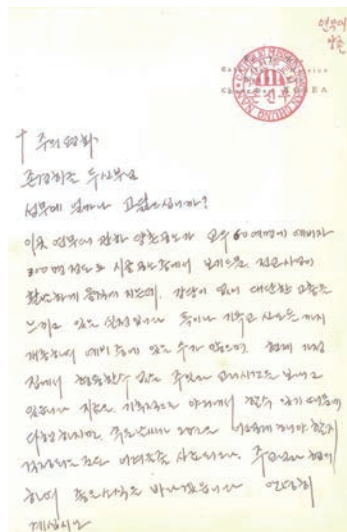
† 주의 평화

존경하을 두 신부님. 성무에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이곳 연무대(본당) 관하 양촌공소가 교우 60여 명에 예비자 300명 정도로 시골 공소 중에서 보기 드문, 전교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데, 강당이 없어 대단한 고충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기독교 신도들까지 개종하여 예비 중에 있는 수가 많으며, 현재 가정집에서 형용할 수 없는 주일과 교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적으로 야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추운 날씨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는군요. 어려울 줄 사료되오나, 주교님과 협의하여 좋은 소식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 백석공소 신축¹⁷⁹

백석공소는 1952년 이후 신설된 연산 사포리공소에서 비롯되었다. 사포리에는 본래 교우가 없었는데 1952년 하영호(시몬)의 가족이 영세하면서 처음 교우가 생겨났다. 하영호 가족의 전교로 교우가 증가하자 1953년경 생제 신부는 공소 신설을 결정하고, 하영호의 집을 ‘공소집’으로 하여 첫 공소를 시작하였다.

하영호 가족과 초대 회장 성주문 도마의 전교로 교우가 나날이 늘어 나가 1960년대 들어 강당을 지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사포리가 너무 궁벽한 곳에 위치해있어 보다 좋은 자리에 있는 백석리에 부지를 마련하였으나 공소 교우들의 궁핍한 사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66년 무렵 논산본당으로 나온 해외 원조금과 교우들의 열정적 노력으로 1967년경에 강당을 비로소 마련할 수 있었다.¹⁸⁰



3. 대건학교 이전

1946년 설립된 대건중학교는 해방 후의 남북분단 상황과 6·25전쟁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점차 자리를 잡았다. 1951년 학제 변화로 중학교 과정이 6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되었고, 8월 31일 대건고등학교가 인가되어 9월 27일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교세의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교우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1,600평에 불과한 대건학교 부지는 1950년대 중반부터 포화상태가 되었다. 주변 여건상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옮기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영택 교장은 부지를 물색하던 중, 김현룡 회장으로부터 천주교 소유지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이 땅은 논산본당 제2대 주임신부였던 공베르 신부가 1925년 6월 26일 매입한 것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를 배메기하여 성당 경비에 충당하고 있었다. 지목이 임야(林野)와 전(田)으로 당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일원에 산재하여 있고, 모두 다섯 필지로 총 4,741평에 달했다. 교사 부지로는 최적지였기에 학교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논산본당 주임신부인 생제 신부의 재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었다.

—
공베르 신부
재임 당시
매입한 본당
소유지 현황

지번	면적	매입 일자
부창리 209-1	田 2,379평	1925년 6월 26일
부창리 209-2	임야 2,059평	
부창리 209-3	田 66평	
부창리 46	田 133평	
부창리 48	田 104평	
계	4,741평	

당시 생제 신부는 본당사무 이외에도 교육사업과 다른 사회복지 활동에 여념이 없었고, 적은 수의 학생을 모집하여 철저히 잘 가르치자는 신념으로 처음에는 학교 이전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재차 삼차의 간절한 청원에 동의하여 부지 매입과 학교 이전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공베르 신부가 구입해 놓은 땅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으므로 1954년 추가 매입이 이루어졌다. 1955년부터 정지 작업에 들어가 본격적인 새 교사 건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건학교 재정만으로는 기금이 충분치 못하였으므로 1957년 12월 2일 교황청 포교성성으로부터 50,000달러의 원조를 받았고, 1961년에는 15,000달

—
1960년
공사 중인
대건학교 본관





리를 추가로 지원받아 완공을 보았다.

1956년 10월 새로운 부지에 2층 여섯 개의 교실이 완공되자 옛 부지에서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먼저 새로운 교사로 이주하였다. 1961년 증축이 마무리되어 본관이 완성되면서 중학생들 일부가 신축 교사로 이주하였고, 잔류한 학생들은 2년 후 모두 이주하여 새 교사로의 이전이 마무리되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행한 대건학교의 이전은 학교가 새롭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¹⁸¹

1961년 7월 5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대축일에 대건학교 새 부지에 건축된 본관 건물의 축성식이 있었다. 본관 건물은 대전교구장 라리보 주교와 논산본당 생제신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교황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완공할 수 있었다.¹⁸²

4. 해성(薺跸)학교의 설립과 정착

1951년 육군훈련소가 들어선 이후 논산이 크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요구들이 생겨났다. 그중 하나가 여자중·고등학교의 설립이었다. 논산에는 여학교가 없었기에 여학생들은 대전이나 강경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건중·고등학교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새 교사 증축을 마치고 1961년 7월 이전함에 따라 논산성당 옆에 위치한 대건학교 목조 건물들이 남게 되었다.¹⁸³

이에 생제 신부는 대건학교 옛 교사에 여학교 설립을 결정하고 1961년 ‘해성여자중·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문교부에 설립을 신청하였다. 그해 12월 30일 설립 인가가 나옴에 따라 1961년 1월 중등부 2학급, 고등부 2학급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¹⁸⁴ 해성학교는 샬트르 수녀회에 운영이 맡겨져 1962년 3월 10일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대전교구장 라리보 주교가 입학식에 참석하였으나 학교 설립을 제언한 생제 신부는 그해 2월 프랑스로 떠난 상태여서 참석하지 못하였다. 같은 시기에 논산여자중·고등학교가 개교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때여서 초기의 해성학교는 학생 부족, 재정 문제,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태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초기에 해성학교 학생들은 신축 교사로 이주하지 못한 대건중학교 일부 남학생들과 학교 건물을 같이 썼다. 당시에는 남녀 구분이 엄격하였으므로 여학생들은 언덕에 있는 교실을 쓰고, 남학생들은 운동장 모퉁이에 있는 교실을 사용하였다. 작은 운동장 역시 중간에 판자로 된 담장을 세워 나눠 사용했으므로 2년여 동안 서로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야 했다.¹⁸⁵



해성학교는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들이 경영하는 학교였기에 이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바꾸기로 합의하였다. 1962년 3월 22일, ‘해성’ 대신에 사도 성 바오로의 불어 발음인 ‘썬뿔 Saint. Paul’로 개명인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교복도 제정하면서 점차 학교의 틀을 잡아갔다.¹⁸⁶

썬뿔학교의 운영은 자연스럽게 썬뿔기숙사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인구가 팽창했다 하더라도 시골에 위치한 논산은 교통이 불편하여 학교 통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라리보 주교의 지원을 받아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개원하고 1962년 5월 31일 축성식을 가졌다. 이듬해 1963년 3월 12일에는 썬뿔초등학교도 설립하였다. 초등학교가 부족하여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던 때였고, 썬뿔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5년 만인 1968년에 폐교함으로써 썬뿔초등학교는 졸업생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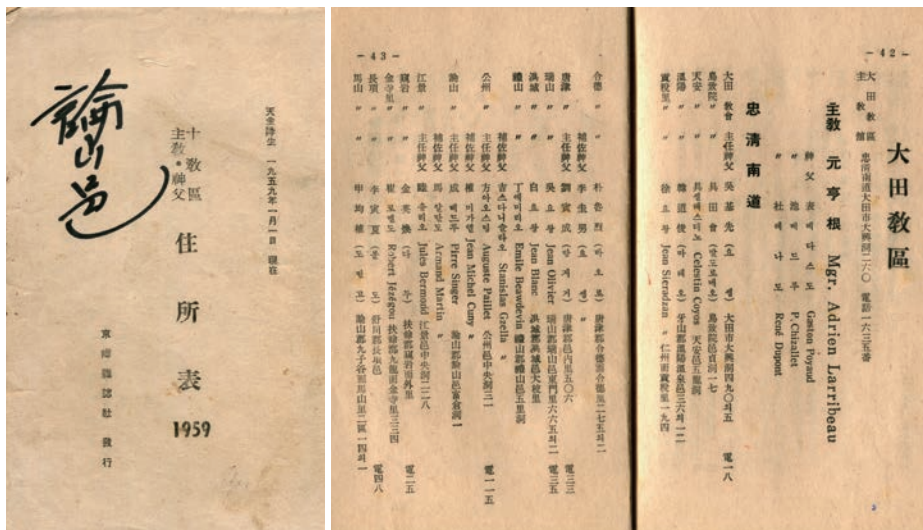
Ⅱ. 교계 설정 전후기

1. 마르탱(마) 알망도 신부의 부임

생제 신부가 주임으로 있던 시기에는 프랑스에서 파견되어 온 새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공부하러 논산으로 파견되곤 하였다. 그들은 말을 배우는 동시에 생제 신부의 보좌 역할도 하며 본당의 성무 활동을 도와주었다. 대표적으로 마르탱Martin, Armand(1926~, 한국명:마) 신부와 로페페Lopepe, Pierre(1930~, 한국명:노베영) 신부가 있다.

‘마馬 신부’로 불렸던 마르탱 신부는 1926년 1월 1일 프랑스 베르사유교구의 에손느에서 출생하였다. 1956년 30살에 사제품을 받고 1958년 1월 21일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 도착하였다. 마르탱 신부는 처음에 서울에서 한국말을 배우다가 논산으로 파견되어 말을 배우며 생제 신부를 도와 사목활동을 하였다. 생제 신부가 여동생인 마르그리뜨 수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르탱 신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생제 신부는 마르탱 신부를 “의기충천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녹록할 것 같다”라고 적어놓았다.¹⁸⁷

그러나 마르탱 신부가 논산본당에 보좌로 부임한 이후 그는 음식, 생활 습관을 바꾸고 언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부하다가 신경쇠약증에 걸렸다. 이에 생제 신부는 보좌신부의 상태를 라리보 주교에게 보고하였다.¹⁸⁸ 결국, 부임 1년 후인 1959년에 논산을 떠났으며, 이후 서산본당 보좌신부로 발령받았다. 당시 주임신부였던 올리비에 신부와 함께 활동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1964년 프랑스로 귀국하였다. 그 후 마다가스카르, 프랑스 등에서 활동하다가 2001년에 은퇴하였다.



2. 로페페(노배영) 신부의 부임

마르탱 신부 다음으로 보좌신부를 역임했던 로페페 신부는 1930년 7월 15일 프랑스 배욜느Bayonne 교구의 썽-쥐스트-이바르St-Just-Ibarre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958년 7월 6일 28세의 나이로 사제품을 받았다. 이후 그는 10월에 프랑스를 떠났으며, 12월 5일 한국에 도착하였다. 그는 총장로의 파리외방전교회 한국지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그러다가 1959년 논산으로 파견되어 생제 신부를 보좌하였다.

1950년대 말, 생제 신부는 새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

해 겨울에도 난방하지 않고, 식사도 최소한으로 준비하도록 했다. 난방과 식사 등을 아껴가며 무리하게 활동한 생제 신부는 결국 질병에 걸렸고, 그는 병을 치료하고자 1962년 2월에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보좌신부였던 로페페 신부가 임시로 본당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생제 신부의 치료가 예상 밖으로 길어졌고, 프랑스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로페페 신



부는 논산본당의 주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64년 6월 13일 귀국한 생제 신부는, 그해 7월 1일에 홍산본당에 부임하였다.¹⁸⁹

로페페 신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선교했다. 오토바이는 당시 논산에서 보기 드문 운송수단이었다. 그의 재임 기간에 논산-강경 국도 3km 구간의 개설 사업이 논산본당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는 군_郡에서 해야 할 일을 구호물자의 도움을 받아 본당에서 수행한 복지사업이었다.¹⁹⁰ 이외에도 1963년 11월 2일에는 가톨릭 노동 청년회^{J.O.C} 선서가 뒤봉 신부 집전으로 논산에서 진행되었고¹⁹¹, 1964년 6월에는 성광원에 가옥 30동과 황무지 22,300여 평을 구매하고 나병환자 구호에 전력을 다했다.¹⁹² 약 3년간 논산본당 주임을 역임한 그는 1965년 6월 10일 조치원본당으로 전임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보좌신부였던 손만재(요한, 1929~2012) 신부가 논산본당 제10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¹⁹³

Ⅲ. 공의회 정신의 구현

1. 새 시대의 요청

—
청년시절
손만재 신부



1965년 5월 31일, 대전교구 제2대 교구장으로 황민성 베드로 주교가 착좌하였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1962년부터 시작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한국 천주교회는 공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쇄신과 적응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요청받고 있었다. 황 주교는 대전교구장에 취임하면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회의 쇄신과 평신도 사도직의 역할을 강

조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천명한 ‘회개와 쇄신’이라는 기치에 부합하려는 교구장의 의지가 취임 당시부터 반영되고 있었다.

신부님들이 솔선해서 교리 강의를 하고 평신도 사도직을 전교방면으로 이끌고 애덕을 실천함이 얼마나 시급한 요구인지! ... 현대의 모든 사상들을 능동적으로 소화해 가면서 현대 정신에 맞추어 우리의 가르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이 우리의 가르침을 생활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황 주교의 의지는 그가 교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수행한 직무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처음으로 개최한 인사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에서, 황 주교는 공의회의 성공과 교

구발전을 위한 기도 봉헌을 첫 번째 결정사항으로 시달하였다.¹⁹⁵

이어 6월 10일 자로 첫 번째 사제 인사를 단행했다. 첫 인사는 교회의 변화와 쇄신이라는 당면 과제를 실현하려는 교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논산본당의 인사이동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 주교는 논산본당의 로페페 베드로 신부를 조치원본당 주임으로 전임시키고, 보좌신부로 재임하던 손만재 요한 신부를 제10대 본당 주임으로 보임하였다.¹⁹⁶ 손만재 신부는 1929년 8월 30일 부여 금사리에서 출생하였다. 대동아 전쟁이 한창이던 일제 말기, 금사리본당 주임 이여구 신부의 추천으로 소신학교에 입학하였다. 대신 학교로 진학 후 제2품까지 받고 나서 프랑스 낭시로 유학을 떠났다.¹⁹⁷ 그곳 신학교에서 남은 학업을 마치고, 1956년 6월 16일에 낭시 대성당 *Cathédrale Notre Dame de l'Annonciation*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¹⁹⁸ 이후 스트라스부르그 국립대학에서 수학하여 「미신자의 구원과 성 아오스당」이라는 논문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62년 5월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¹⁹⁹

한국으로 돌아온 손 신부는 1963년 4월부터 ‘전국 전례 위원회’에서 전례 위원회 강사로 추대되는 등 전환기를 맞은 한국 천주교회에서 공의회 정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²⁰⁰ 손 신부는 공의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개방과 쇄신 의지를 유럽에서 직접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 체계를 겸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손 신부 재임기의 논산본당은 공의회에 입각한 한국 천주교 쇄신이라는 선구자적 사명이 부여되어

—
사제서품식
(낭시 대성당)
프랑스
유학시절



있었다. 변화를 꾀하려는 한국 천주교회에 지역교회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논산본당의 자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본당 조직의 개편

공의회가 끝난 직후 교황 바오로 6세는 1966년 성년(聖年)을 선포하였다. 황 주교는 교황의 성년 선포의 지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공의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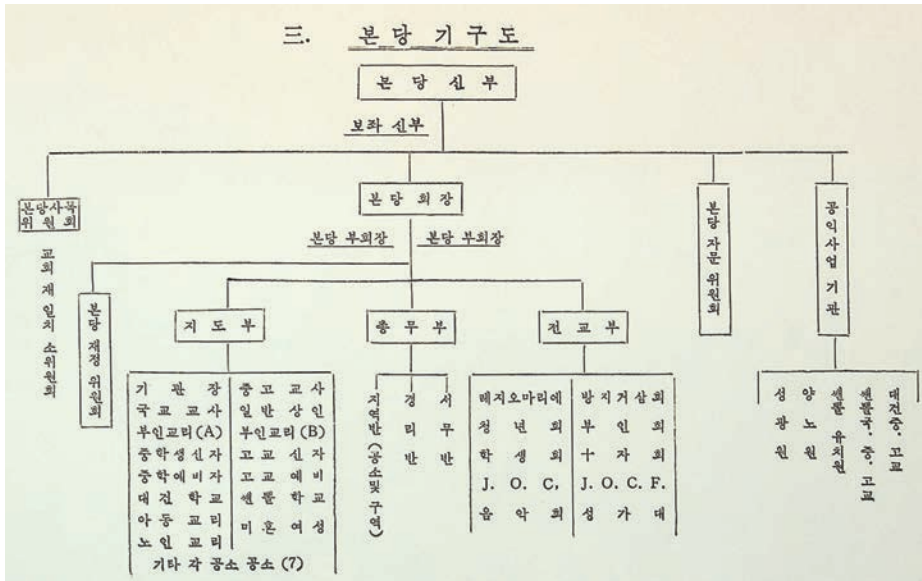
공의회 정신과 훈령이 하루바삐 모든 정신을 감동하여 많은 결실을 내도록 또한 이번 공의회가 제2의 성령강림이 되도록 기구하는 뜻에서 특별 성년을 반포하신 교황 성하의 뜻을 받들어 신자들은 이 성년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를 간곡히 권하며 각 본당신부는 이 기간에 공의회에 관한 특별 강론이나 설명회를 세 번 이상할 것을 지시하고 신자들은 고해 영성체한 신자로서 공의회에 관한 강론이나 설명을 세 번 들을 때마다 그리고 다소 성대하게 지내는 주교 미사에 참여 참배하고 종도신경이나 니체노 신경을 외워 성세허원을 재신할 때마다 한 번의 전대사를 얻는다고 발표하였다.²⁰¹

공의회가 천명하는 주요 가르침들에 대해 우선 사제들이 숙지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성년 행사 참여와 공의회 관련 특별 강론과 설명을 세 번 이상 들을 것을 전대사 수여를 위한 조건으로 시달하였다. 교회의 쇄신을 바라는 교회의 원의와 이를 구현해 내려는 교구장으로서, 그만큼 절실하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세계 교회로부터 요청된 교구장의 강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장소가 논산본당이었다. 손 신부의 발령은 논산본당이 한국 천주교회 쇄신의 선구자로서 역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2) 평신도 사도직 실현을 위한 노력

1966년 「교세일람」의 기구도를 통해 본당의 조직 구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본당 회장단을 중심으로 총무부, 전교부, 지도부가 본당 제 단체의 운영을 주관하고, 재정위원회가 이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본당 재정위원회는 본당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녀와 평신도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재정관리 부분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교구장의 방침이 적용된 것이었다. 본당신부를 회장으로 하는 사목위원회와 수녀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자문위원회 그리고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사업 기관과 기구를 별도로 두고, 본당신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맡았다. 본당 기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부분별로 임무를 분장한 가운데, 평신도가 주도하거나 사목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화하려는 것이었다. 학교와 복지시설을 본당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었다. 한편 '교회재일치소위원회'를 조직도 속에 명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와 함께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의회 직후, 보편 교회가 크게 관심이 있는 교회 재일치를 위한 움직임은 본당의 사목활동에서 제도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966년
본당 기구도



1967년 2월 26일 자 『가톨릭시보』에 따르면, 논산본당에서 책자로 제작한 교세일람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² 이 일람표는 1966년 12월 31일 자로 작성된 것인데, 논산본당에서는 이에 앞서 1965년 6월 24일 자로 교세일람을 제작한 바 있다. 1965년의 일람표는 새로 부임한 본당신부가 본당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 교구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등사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비해 1966년 일람표는 활판으로 인쇄되었다. 두 일람표는 형태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1965년 일람표에서 보이지 않는 ‘본당 기구도’와 기구의 구성원들이 1966년 일람표에는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손만재 신부가 부임하고 나서 1년 반 동안의 재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계 교회의 흐름과 교구장의 사목 지향이 본당신부의 역량과 어우러져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사례가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구장 황민성 주교는 공의회 정신의 실현을 교구 사목 지표로 설정하고 교구 사제와 평신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공의회 개혁작업 중 성직자들이 보다 열심히 사목활동에 열중할 수 있게 교구 혹은 본당 운영(주로 경제적인 면에서)을 평신자에게 맡기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65년에 시작한 동 교구는 공의회가 제시한 새로운 교회관을 성직자의 재교육과 평신자 지도자 양성이란 방법으로 주력하고 있는 지난 1년간 4개 본당을 신설했고, 영세자는 작년보다 1,011명이 더 많은 3,297명이다.²⁰³

대전교구는 공의회가 제시한 새로운 교회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교구 내에서 논산본당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람표가 보여주듯이 보편 교회의 요청과 교구장의 사목 방향에 대해 논산본당은 손만재 신부의 주도로 선구적으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교회 재일치를 위한 노력

공의회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교회 재일치’였다. 우리는 교회 일치를 위

한 논산본당의 구체적인 노력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1966년 「교세일람」의 기구표에 ‘교회재일치소위원회’가 기명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본당에서는 교회 일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원회를 통해 실현할 의지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의 역할을 본당 청년회가 대신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논산 본당 청년회가 주최한 교파를 총망라한(1백 50여 단체를 대상) 친목 배구대회가 4월 29일 이곳 대건 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22개 팀이 참가한 동 대회는 오전 9시 논산 역전 광장에 집결하여 각 단체마다 소속교회 표지를 앞세우고 시내 번화가를 누비며 입행행렬을 가졌다. 동 행렬 선두에는 대전교구장 황 주교님이 오픈카에 편승하여 연도에 줄지어 환영하는 썬플 및 대건 중고교 학생을 위시한 수많은 신자, 일반인들에게 강복을 주었다. 이날 선수 중에는 신부, 목사가 포함되었으며 여 선수 2명이 포함할 것을 원칙으로 했고, 대건 고등학교 밴드와 제2훈련소 군악대가 찬조를 하여 한 층 흥을 돋우었다. 저마다 속한 교우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열전 끝에 득승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우승:연무대 천주교회

2위 마산 감리교회

3위 기독교 장로교 논산교회이다.

이날 대회는 황 주교님의 격려사 끝에 감리교 목사의 축도로 폐회했다.²⁰⁴

1967년 4월 29일에 열린 논산 지역 초교파 배구대회는 교회 일치에 대한 공의회와 교구의 가장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에 본당의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청년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논산 지역 전체 대상 기관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본 대회에 앞서 논산역 광장에서 대건중·고등학교까지 시가 행렬을 가지며 공의회가 전하는 가톨릭교회의 대화와 쇄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교구장주교가 직접 참석한 이 행사는 지역의 친교 행사를 넘어서 교회 재일치를 위한 교회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 평신도 사도직의 구현

1965년 6월 현재 본당에는 JOC, 청년회, 부인회, 학생회, 십자회, JOCF 등 6개 활동 단체와 함께 레지오마리아와 음악회가 편성되어 있었다. 이후 1966년 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제3회와 성가대가 추가된 한편, 신심 및 활동 단체를 구별하지 않고 ‘전교부’ 산하에 10개의 단체를 모두 배치하였다. 이 가운데 취업 청년들로 구성된 가톨릭 노동 청년회 JOC는 미혼 여성으로 구성된 JOCF와 함께 주요 청년활동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JOC는 1961년 7월에 발족된 이래로 교구 내 주요 본당들은 노동 청년활동을 장려하고 있었는데,²⁰⁵ 논산본당은 JOC 대전교구 연합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의 노동 청년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²⁰⁶ 20~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당의 성격상 일상에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펼치는 주요 단체로 자리하고 있었다. 십자회는 신자와 예비신자로 편성되어 있었다.

① 프란치스코 제3회

교회 영신적 쇄신을 위한 손 신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돋보이는 것은 레지오마리아와 ‘방지거 삼회’(프란치스코 제3회)였다. 손 신부는 1966년에 프란치스코 제3회를 정식 인가해 줄 것을 교구장에게 요청하였다.²⁰⁷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지향하는 평신도 사도직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프란치스코 제3회가 활약해 줄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66년 7월 9일에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후보로 모시고, 정회원 12명과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란치스코 제3회 논산 형제회가 조직되었다.²⁰⁸ 초대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프란치스코 제3회 논산 형제회 임원〉

회장:김 요왕(갑선)

부회장:김 암브로시오(종술)

서기 겸 회계:김 알로이시오(우진)

수련장:김 치릴로(석배)

논산본당 프란치스코 제3회의 초대 회장으로는 당시 산동리 공소회장 김갑선 요

한이, 수련장은 본당 부회장이자 교리교사로 활동하던 김석배 시릴로가 맡았다. 방지거 삼회는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일상에서 구현하려는 평신도 단체이다. 회원들은 일정한 회칙과 조직을 갖추고 내적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프란치스코 제3회는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본당의 영성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본당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레지오마리아

프란치스코 제3회와 함께 영성적 쇄신을 위한 신심 운동을 보다 역동적으로 전개한 것은 레지오마리아 활동이다. 1957년 대전교구에서 최초로 설립된 ‘천지의 모후’ 뵈레시디움에 이어, 1959년에는 역시 교구 최초로 논산본당에 설립된 ‘루르드의 성모’ 꾸리아가 창립된 바 있다. 논산본당의 꾸리아는 1965년 현재 남성 2개, 여성 1개 그리고 4개의 혼성으로 그룹 등 7개의 뵈레시디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손 신부는 1965년 7월 19일자로 교구장으로부터 꾸리아 지도 신부로 임명되었다.²⁰⁹ 이후 이듬해 말 논산본당의 뵈레시디움은 소년·소녀 각각 한 개씩을 비롯해 13개로 증편되었다. 뿐만 아니라 5개의 뵈레시디움 추가 증편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²¹⁰ 그 외에도 1966년도 기관장 교리반 영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뵈레시디움 증설 계획도 있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전교활동과 지속적 신앙교육 차원에서 레지오마리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③ 청년회

청년회는 18세 이상 45세까지를 회원 자격으로 하였다. 1966년 말을 기준으로 청년회원의 대상이 되는 18세에서 45세까지 연령대는 적게 잡아 1,5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교우수의 약 35% 이상이 된다. 이처럼 청년회는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령대로 보거나 교세의 비중에 있어서나 가장 크고 왕성한 활동 단체라고 할 수 있었다.

	1966년 11월 임원 명단 ²¹¹	1967년 12월 임원 명단 ²¹²
임원 명단	회장:유 요안(수영)	회장:유 요안(수영)
	부회장:	부회장:
	김 요셉(완석), 나 야고버(윤천)	김 요셉(완석), 나 야고버(윤천)
	총무부장:김 베드루(홍배)	총무부장:박 프란치스코(석규)
	총무차장:김 바오로(용식)	총무차장:김 바오로(용식)
	재무부장:윤 이고나오(정균)	재무부장:박 리노(희양)
	교회부장:박 리노(희양)	교회부장:윤 이고나오(정균)
	후생부장:홍 요셉(창환)	후생부장:홍 요셉(창환)
		보건부장:강 스테파노(순선)

청년회의 주요 활동은 앞서 교회 일치를 위한 행사를 주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외적인 행사의 실무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본당에서 기획한 연중행사의 계획을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 갔다.

④ 학생회

본당의 기구표나 교리반 현황을 보면 논산본당은 학교 운영이나 학생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건중·고등학교와 썬밸여자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입교자가 나오는가 하면 입교한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논산본당 학생회 주최로 병인 순교 백 주년을 기념하여 11월 6일 썬밸유치원에서 신부 수녀 남녀 고교생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교사회의 밤’을 성대히 개최하였다. 치명자의 용덕과 애주덕^{愛主德}을 찬양, 현시대에 사는 학생들도 주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의 향락을 버릴 수 있다면 또한 훌륭한 치명이 된다고 역설했다.²¹³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당에서 기념하는 병인 순교 백 주년 행사를 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하는가 하면 에큐메니컬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응원단과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한 신앙 활동은 자연스럽게 성소자의 양산과 평신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